

확대,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문과목 추가신설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이 있으며, 학문적 현황과 교육 여건에 대한 조사결과, 추나과와 예방한의학과가 신설 요건을 만족하여 전문과목으로서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외에도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는 노령한의학과(가칭)를 한방의료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중풍의학중심의 한방응급의학과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으나, 아직 정식 학회가 발족되지 못하여 현재로서는 신설을 논의할 수 없었다. 또한, 앞으로 한의사 전문의제도가 의사 전문의제도처럼 개업을 위한 표방 수단으로써 왜곡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KSPM-106

우리나라 일부 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의약품 광고의 근거에 대한 평가

Quality of the pharmaceutical advertisement claims in five Korean medical journals

안성복¹⁾, 하경수¹⁾, 최원²⁾, 김현창¹⁾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한국 엠에스디 의학부

Objective: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quality and evidence of pharmaceutical advertisements in medical journals. However, the medical review process of pharmaceutical advertisement is not fully developed in Korea. We conducted this study to assess whether the pharmaceutical advertisement claims in Korean medical journals had relevant references, and whether the claims were supported by the references.

Methods: We reviewed all advertisements promoting pharmaceutical products in five Korean medical journals (The Korean Circulation Journal, Kor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Korean Academy Journal of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docrinology, The Journal of The Korean Rheumatism Association) issued in the first half of 1999 and in the first half of 2004. Three investigators independently reviewed the advertisements to see whether the studies quoted to endorse the advertising messages supported the corresponding claims.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 investigated which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the advertisement claims.

Results: From the 550 advertisements in the five journals, we identified 157 different advertisements and 475 different promotional claims. Only 149 claims (62 in 1999 and 87 in 2004) had at least one reference, and 105 claims (38 in 1999 and 67 in 2004) had references of published article. We could find supporting evidences in the 90 claims (29 in 1999 and 61 in 2004). Three claims were not supported by the published references, and 12 claims could not be assessed because of non-standardized and incorrect citation. The factors which were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advertisement claims were drug category, claim category, and the manufacturer characteristics. Claims for cardiovascular and endocrine drugs (vs. respiratory drugs), and claims on efficacy (vs.

convenience, cost and others), and claims of multinational company (vs. domestic company) were more evidence-based. Publication time was not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the advertisements.

Conclusions: Majority of the pharmaceutical advertisement claims in Korea did not have appropriate references, and no significant improvement was observed in the past 5 years. Drug category, claim category, and the manufacturer characteristics were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advertisement claims, and the manufacturer characteristics wa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s. Guidelines for medical advertisements and standard formats for citation are needed.

KSPM-122

대학 신입생들의 입학 전 2개월간 안전사고 발생 실태

Safety Accidents Status of Freshmen for 2 Months before Entrance University

민영선¹⁾, 임현술¹⁾, 이관¹⁾

(1)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목적: 국내에서 2003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65.3명으로 사망 순위 3위이고, 1세에서 39세까지의 사망 원인에서는 1위이다. 그러므로 청년층의 사고 원인과 예방을 위한 보건 교육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일개 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입학 전 안전사고 발생 실태를 조사하였다.

방법: 2004년 3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학교 보건소를 방문한 신입생 1,982명을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학 전 2개월 동안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미완성된 설문지를 제출한 62명을 제외하고 1,920명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안전사고는 일상생활 중 자신이나 타인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정의하였다. 성별, 출신 지역, 졸업 후 입학할 때까지 기간과 안전사고 여부에 대하여 chi-square 분석을 실시하여 p<0.05를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985명(51.3%), 여자 935명(48.7%)이었다. 입학 전 2개월 동안 안전사고는 38명이 발생하여 100명당 발생자는 1.98명이었다. 남자는 28명이 발생하여 100명당 2.84명, 여자는 10명이 발생하여 100명당 1.07명으로 교차비는 2.71(95% CI; 1.31-5.60)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사고를 당한 상황은 일상적 행동을 하던 중 13명(36.1%), 스포츠 활동 시 10명(27.8%), 교통사고 8명(22.2%)의 순이었다. 발생 장소는 골목 및 도로가 17명(47.2%), 운동장이 13명(36.1%), 집에서 4명(11.1%), 작업장이 2명(5.6%)의 순이었다. 손상 기전으로는 물건,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가 18명(47.3%), 넘어진 경우가 14명(36.8%), 추락 7명(13.2%)의 순이었다. 손상 종류는 염좌가 13명(36.1%), 타박상이 7명(19.4%), 열상이 6명(16.7%)의 순이었다. 사고의 원인으로서는 자신의 부주의가 23명(63.9%)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발생 후 병의원을 방문한 경우는 28명(73.7%), 그 중에서 입원을 한 경우는 7명(18.4%), 수술은 3명(7.9%)이 받았다.